

發燒音響

THE HIGH END AUDIO JOURNAL OF HONG KONG

AUDIOPHILE

MARCH 2013 \$100

EXIMUS
DP1

Ultimate 24/192 DAC-Preamplifier

APRIL
MUSIC



27週年特大號

April Music

Eximus DP1 DAC pre-amp

내가 처음 Eximus DP1을 시청하였을 때 경이로움에 이어 기쁨을 맛보는 희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리뷰 했던 트랜지스터 앰프들 중, 이 정도의 적당한 가격에 이만큼 고급스러운 음질을 표현해냈던 기기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열렬한 진공관 앰프 (Tube amplifier) 추종자이며 '귀에 차는' 트랜지스터 앰프는 매우 적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여전히 몇몇 걸출한 작품의 아름다운 소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80년대에 제조된 Cello 앰프의 음색은 아주 자연스럽게 들을만한 트랜지스터 앰프의 명기였다고 생각한다. 이외에 스위스 FM Acoustics의 최고급 트랜지스터 프리앰프의 음색은 화려하고도 강렬하여 수십 년 간 부유한 오디오파일들의 찬양을 받아왔다.

그러나 나는 눈앞의 이 조그마한 프리앰프가 이러한 경지에 이를 정도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다른 시장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리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Eximus DP1의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음색과 사람의 혼을 울리는 생동감은 이미 역대 트랜지스터 설계의 최고 수준에 다다랐으며, 열 배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본다. 그것이 현재의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것은 세계 음향사상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Eximus DP1은 한국의 고급음향회사인 April Music의 최근작으로, 이 회사는 예전부터 프리미엄 상품을 설계, 제조해왔다. April Music이 2004년에 내놓았던 Stello DA220 앰프가 떠오른다. 당시에 나는 그 앰프를 시청해 본 뒤 역대 최저가의 디지털기기라고 칭찬한 바 있으며, 이 제품은 홍콩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어 '사스' 유행 이후의 홍콩의 음향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앰프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10년 후 오늘, April Music의 전설은 되풀이되어 '크기는 작지만 소리는 거인과 같은' 프리미엄 Preamp를 출시하게 되었다. 그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시청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자세히 적어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pril Music의 사장인 Simon Lee는 나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는 원래 한국에서 외국의 고급음향기기를 수입판매 했었다. 이후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여 트랜지스터 앰프와 CD Transport를 생산해냈다. 그는 기계의 외형·제작·재료를 소리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또한 한국을 생산지로 한 April Music의 생산품은 오직 가장 높은 '가성비'를 통해서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DA220은 비록 음

질이 절정에 이르렀고 Chassis 역시 매우 튼튼하였지만 외형 디자인에 있어서는 미감을 고려했다고 말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Eximus DP1의 Chassis 디자인과 제작은 생산 원가를 아끼지 않고 미국의 산업디자이너 Alex Rasmussen에게 맡겼다.

미국 전통 수공업 기계 공장이 쇠락한 근년, Alex는 고급음향기기의 Chassis 주문에 의지하여 금속가공 수준이 가장 높은 공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Ayre나 Constellation 등의 회사를 위해 제작한 Chassis는 매우 훌륭해서 일찍부터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가 이번에 Eximus DP1을 위해 제조한 Chassis는 몸체가 비교적 자그마하지만 윗면에 나뭇잎 모양을 돌려 배치한 각인을 장식하여 '봄이 도래하였다 (April Music이니까)'는 의미를 상징하였다.

그리고 몸체의 조립은 빈틈없이 들어맞아 내가 예전에 본 중에서 금속 가공이 가장 뛰어났던 스위스의 NAGRA Chassis와 동급이다. April Music이 이러한 가격의 기기에 이렇게 원가가 높은 몸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제조사가 원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찬탄을 불러일으키며, 또 한편으로는 그 소리 방면에서도 Chassis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자칭 마니아로서 나는 지금까지 메이커가 DAC와 Preamp를 한 몸체에 통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오디오파일들은 기기를 업그레이드 할 때 하나씩 분리된 기기를 구입하기를 좋아하는데 DAC/Preamp를 그렇게 하기 어렵다. 한 기기를 사면 두 가지를 기기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디오파일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기를 습득하는 민첩성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오로지 한 가지 상황에서 DAC/Preamp는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DAC이건 Preamp이건 그 개개의 음질은 매우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기를 사면 각기 다른 성능이지만 똑같이 소리 표현이 뛰어난 두 점의 기기를 구입하는 것과 같다. 과연 Eximus DP1은 DAC와 Preamp가 모두 이 정도로 소리의 표현이 뛰어날까?

본 잡지의 청음실에서 시청(試聽) 할 때 나는 우선 Eximus DP1을 전체적으로 시청해 보았다. 나는 본지의 레퍼런스 기기인 Sony CDPR-10의 디지털 신호를 직접 Eximus DP1에 입력하여 DAC/프리부를 통해 신호를 Western Electric 124A로 보내고, ROCKPORT Mira Grand 스피커로 울려 보았다. 바꿔 말하면 Eximus DP1이 청음실에서 쓰던 WEISS DAC 202와 新時에서 복각한 Western Electric 129 Preamp를 Eximus DP1으로 교체했다고 할 수 있다.

Eximus DP1은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기기들을 대체하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은 형상이었다. 이는 바로 직접적으로 Eximus DP1의 음질과 잠재력을 증명한 것이었다. 시청 전에 나는 Eximus DP1이 만약 WEISS·Western Electric의 6~7배의 효과를 낸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해리가 쉐리를 만났을 때'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트랙1을 틀고 대충 20초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이미 크게 놀라고 말았다. 왜냐하면

Eximus DP1이 표현해 낸 감정·음색 그리고 힘이 모두 Weiss·Western Electric에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고하를 나눌 수 있는 것은 Weiss·Western Electric의 음색이 비교적 풍부하였고 Eximus DP1이 상대적으로 소박하여 독특한 Western Electric의 우아하고 고상한 맛을 그대로 전해주기에는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Weiss·Western Electric이 HKD 200,000 정도의 값으로 겨우 이 한 부분만이 뛰어나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갖게 한다.

또한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여러 장의 프리미엄 CD를 넣어서 비교를 하게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Eximus DP1과 Weiss·Western Electric의 소리 차이는 미세하다. 다만 분위기와 우아하고 고상한 맛을 중요시하는 고전 실내악을 틀어 보았을 때, Eximus DP1은 조금 단조로운 느낌을 주어 Weiss·Western Electric 만큼의 농후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Weiss·Western Electric은 원래 이미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서 음색이 가장 아름답고 감정이 가장 풍부한 DAC/Preamp의 조합이다. 그런데 Eximus DP1이 따라 잡았다는 것은 전체적인 소리의 표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수준에서 DAC/Preamp로서 Eximus DP1은 설마 이 가격에.. 라고 믿기 어렵게 만든다.

다음으로는 Eximus DP1을 Preamp로만 사용해 보았을 때는 어떤지 테스트해 보았다. 나는 Sony·Weiss CD조합을 직접 Eximus의 AUX단에 입력 하였다. Preamp를 통한 뒤에는 신호를 Western Electric Power Amp로 입력하였다. 말하자면 이번에는 Eximus DP1을 新時129와 비칭해 본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新時129에는 여덟 개의 Western Electric의 유명한 348A 진공관(가격: HKD10,000)이 들어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사용해 본 음질이 가장 좋은 세 대의 Preamp 중 하나이다. 나는 Eximus DP1이 129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자의 소리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날까?

Eximus DP1을 DAC/Preamp로 사용하였을 때 실제로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Preamp로서 단독으로 129와 링 위에 올렸을 때, 나는 감히 결론을 예측하지 못했다. 진정으로 비교를 해보아야만 비로소 분명해 질 것이었다.

몇 장의 테스트용 CD를 틀어본 후에 나는 무척이나 기쁜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129가 여전히 황제의 지위를 유지하였기 때문인데, 그것의 농밀한 질감과 폐부를 찌르는 음질은 Eximus DP1이 쉽사리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Eximus DP1이 Preamp로서 표현해 낸 뛰어난 음색, 강렬한 음악감, 가슴을 울리는 폭풍과도 같은 약동감과 깊고 깊은 저역은 오히려 Cello, Suite 이래로 내가 들어 본 트랜지스터 Preamp 중 최고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진공관 앰프가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트랜지스터로 설계한 Eximus DP1이 발휘하는 소리표현에 쉽게 설득당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밖에 덧붙이자면 작고 정교한 Chassis 디자인은 음향 디자인의 규격을 탈피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Preamp의 Power supply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을 알려 준다. (심지어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도 한다.) 한 없이 넓은 물을 끌어서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들 기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Eximus DP1 이 작은 기계는 알 수 없는 지경까지 폭발적인 기세를 내뿜는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 April Music Eximus DP1은 유사 이래 가장 음질이 좋으면서도 값이 싼 DAC/Preamp 이다. 단독으로 Preamp로만 사용했을 때 그 소리 표현은 이미 현재 HKD100,000 정도의 Preamp 수준에 다다랐다. 여기에 DAC를 더했다니 나는 그 저렴한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陳煥光

과거 1년 최고급 프리미엄의 기계 두 점

利智偉의 선택:

April Music, Eximus DP1 DAC·Preamp

April Music, Eximus DP1 DAC·Preamp

Chan 편집장과 편집위원 Charlie Ma가 이 기기를 테스트했을 때 나는 '물가의 학'의 신분으로 DP1을 들어보았다. 이 기기가 자그마하지만 오히려 거대한 잠재력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AC부분은 풍부하고 활기찬 음악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뽐내었고 또, Preamp의 귀족에 도전하는 높은 실력을 드러내었다. 더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기기가 Preamp부분을 내장하고 있어, 전통적인 RCA입력 방식으로 다른 기기들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효과는 비범하다. 우수한 질의 TR Preamp로써만 가질 수 있는 고귀함을 발휘하는 것이다. 결코 서비스로 주는 하찮은 덤이 아니라, 진공관앰프와도 견줄만한 기기이다. 만약 가정에서 사용하는 Preamp를 아직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혹은 진공관앰프와 함께 비교 사용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DP1 한 대는 입력 소스 쪽의 표현을 대폭으로 끌어 올릴 뿐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어서 기초를 탄탄히 해줄 것이다. 더하여 입력 소스 쪽의 활성화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도 줄 것이다.

